

무주군, 대형 성탄트리 점등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성공 기원 뜻 담아 의미 더해

무주군 대표 겨울 상징물 중 하나인 군청 앞 대형트리가 12일 불을 밝혔다. 대형 분수대에 설치된 트리의 높이는 9m(둘레 24m)로 트리를 장식한 조명과 군청 입구에 세워진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상징물이 어우러져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무주군기독교연합회(회장 조인희, 안성면 진도교회 목사)와 무주군이 공동 주관한 이날 점등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주민 등 2백여 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점등식에 앞서 성탄을 축하하는 기념식에 참여했으며 저녁 5시 30분에는 한마음으로 수만 개의 전구로 장식된 대형트리에 불을 밝혔다. 올해는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성공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군수는 “2024년은 무주를 알리고 무주로 손짓하며 관광무주의 옛 명성을 되찾는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라며 “특별히 올해 트리에겐 그 염원을 담은 만큼 오며 가며 트리를 보실 때마다 함께 기원해달라”고 전했다.



무주군 대표 겨울 상징물 중 하나인 군청 앞 대형트리가 12일 불을 밝혔다.

다. 이어 “앞으로 두 달여 간 무주군 전역을 환하게 밝히게 될 트리가 이 땅에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우리를 다독이는 위로이자 내일의 소망을 품게 하는 용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주군 성탄트리는 지난 1999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해 해마다 겨울이면 무주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안온함을 전하고 있다.

주민들은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만나 그런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 나는 것 같다”며 “세상 걱정도 풍파도 모두 아름답게 반짝이는 저 트리 불빛 속으로 다 녹아들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무주방문의 해라고 쓰여진 조명을 보니까 2024년이 가다려지고 설렌다”며 “꼭 성공해서 무주가 북적북적 생기로 가득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마이산 겨울동화축제 떠나볼까”

진안군, 23~24일 마이산 북부 일원서 공연·이벤트 등 개최

진안군 대표 겨울축제인 ‘마이산 겨울동화축제’가 오는 23일에서 24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마이산 탐사에서 생기는 신비한 현상 중 하나인 역교름을 상상속 동물인 유니콘의 뿔로 표현해 유니콘과 함께 즐기는 동화 속 세상을 컨셉으로 진행된다.

추운 겨울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얼음 미끄럼틀과 썰매장이 상설 운영되며 행사 첫날인 23일에는 마칭밴드의 퍼레이드와 미술, 솜사탕 등의 가족공연 등은 물론 홍삼떡볶이 나눔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4일에는 인형극 ‘백설공주와 숲속 친구들’ 등이 펼쳐진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가족썰매대회, 스탬프 투어인 ‘유니콘 뿔을 찾아서’, 꼬마도서관 등의 다양한 상설이벤트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동심을 찾고 싶은 가족, 연인, 친구들이 많은 참석을 바란다”며 “진안군만의 특색있는 축제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는 12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농공단지 20개 업체 대표와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훈식 장수군수,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가져

최훈식 장수군수는 12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농공단지 20개 업체 대표와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코로나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 상황 악화로 여러 고충을 겪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입주기업인들의 운영 관련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과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일자리 지원정책 등의 사업을 설명하고 군과 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며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장수군은 올해 노후된 농공단지 기반 시설 정비를 실시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했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 물품의 홍보 등을 진행해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쳤다.

최훈식 군수는 “기업과 근로자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 건설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귀농귀촌인·취약계층 통합지원체계 구축

장수군 귀농귀촌지원센터-장수군 노인장애인지원센터, 협약 체결

장수군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지난 11일 장수군 노인장애인지원센터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귀농귀촌인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적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연대를 확립해 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와 통합지원을 함께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연계하며 지역사회의 이해와 적응을 서로 돕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 운영에 협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원봉사 이해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지역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발굴 등 협력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 등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택시 운수종사자 ‘생활안전 명예 요원’ 위촉

무주군은 12일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 58명을 ‘무주군 생활안전 명예 요원(이하 생활안전 명예 요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전 명예 요원은 관내 이동이 많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기동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의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임기 제한없이 각종 행사 교통통제 지원을 비롯해 산불 및 환경오염 감시, 안전신문고, 복지위기가 구급발출, 무주홍보에 발 벗고 나서게 된다.

12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이들은 위촉장과 함께 안전요원증, 그리고 ‘생활안전 명예요원



(무주군 지킴이)’라는 것을 알리는 차량 스티커를 받았다. 황인홍 군수는 “여러분께 안전한 무주, 활기찬 무주가 달려있다”며 “무엇보다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무주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무주가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과 확신을 심는 데 일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태권도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힘 모은다

무주교육지원청-무주군 교육행정협의회 실시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은 무주군청과 원활한 소통으로 교육협력력을 증대하고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11일 ‘2023 무주군 교육행정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황인홍 무주군수,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및 의원, 교육지원청, 군청, 군의회 교육협력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2023 교육협력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교육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무주 태권도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추진 경과보고를 통해 설립에 대한 참석자들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정책 시행에 맞추어 ‘무주 태권도 교육발전특구’ 신청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역 인프라인



무주교육지원청은 무주군청과 원활한 소통으로 교육협력력을 증대하고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11일 ‘2023 무주군 교육행정협의회’를 실시했다.

국립태권도원과 국제태권도사관학교와 연계한 태권도 교육발전특구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은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태권도고 설립 및 특구 조성에 적극적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군청과 군의회 관계자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태권도고 설립 및 교육발전특구 정

책 추진에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승기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오늘 협의회로 무주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태권도고 설립 및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지역 청소년 관련 정책 의견 교환

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 제안 간담회 개최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2일 오후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체험활동실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청소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하반기 정기간담회를 갖고 청소년들이 제시한 관련 정책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은 3개로 무주군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정, 공영자전거 운영, 무주 청소년수련관 노래연습실 개선이다.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정의 경우 무주군 청소년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성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이 있어 무주군에서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 제정에 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공영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계획 수립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영자전거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는 무주청소년수련관 노래연습실 개선으로 시설 노후 부분의 경우 수련관 운영비를 통해 개선할 수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2일 오후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체험활동실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청소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하반기 정기간담회를 갖고 청소년들이 제시한 관련 정책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은 황인홍 군수와 청소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있도록 검토했다. 그리고 출입문의 경우 시급한 상황으로 내년 기능보강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빛나는 사명감과 목직함 책임감으로 무주군 청소년 정책 만들기에 주력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을 위

으로 참여시켜 무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이다. 지난 5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다. 작년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무주청소년수련관 반디노티어 컴퓨터 교체, 심폐소생술 교육 등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식품안전관리 유공 기관 선정... 도지사 표창

진안군은 ‘2023년도 식품안전관리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전라북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전라북도는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한 유공기관 및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유공기관으로 선정된 진안군은 △집단지식소 등 위생 취약업소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진안홍삼축제 식품안전사고 대비 식중독 예방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음식점 시설개선 및 위생등급컨설팅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위생업소 운영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협은행 장수지부 장수군에 장학금 기탁

농협은행 장수군지부(지부장 정영선)가 12일 지역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200만원의 장학금을 (재)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 이하 재단)에 기탁했다.

장수군지부는 취약농업인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 금융기관이다.

정영선 군지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서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힘이 되고 싶어 기탁하게 됐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식 이사장(장수군수)은 “지역 교육과 인재 양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주시는 정성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 및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전달받은 기탁금을 지역 인재양성과 장수군 교육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동향면 지사협 ‘행복더하기’ 행사 진행

진안군 동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성문경, 양옥연)이하 지사협)는 12일 거동이 어려운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42세대에 밀반찬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전달하는 ‘행복더하기’ 행사를 진행했다.

지사협 위원들은 ‘건강한 행복을 더하는 동향면’을 만들고자 뜻을 모은 이후 4년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꾸러미를 만들고 전달하며 안부를 묻는 행복더하기를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행사는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의 후원과 동향면 지사협의 공동 모금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전주에서 유통업을 하는 하노파를 출신 김병근 씨가 고향의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기부한 각티슈도 꾸러미에 함께 넣어 전달했다.

회원 14명은 나눔행사 며칠 전부터 꾸러미 재료를 준비하고, 정성껏 불고기과 말치볶음, 장조림을 비롯한 반찬과 과일, 김부각, 화장지 등으로 꾸러미를 만들어 냈다. 양옥연 민간위원장은 “꾸준한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하기 힘들어도 불구하고, 기쁘게 참여하는 위원들이 있어 지역주민이 험기처럼 잘 지내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